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조계종 종무원이 개××?

“야, 너는 위원장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을 하나. 위원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위원장 허락도 없이 말해도 되나. 개××야!”

이런 욕설과 막말이 터져나온 곳은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 대한민국 국회 회의장이 아니다. 다름 아닌 1월 20일 열린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무예) 회의장. 3선 중앙총회의원인 무예 스님이 ‘위원회에서 역경원장 월운 스님 해임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여부를 논의하던 중 총회 사무처 재가종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돼야 할 스님이 출가수행자의 위위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한 것은 재가종무원에게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스님들이 노거 사님이나 보살님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중진 스님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폭언을 했다는 점에서 재가종무원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는 1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무예 스님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기중앙총회 석상에서 종무원들에게 이변과 같이 욕설을 하여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무예 스님의 공개참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런 욕설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

은 조선시대의 양반이 하인에게 막말을 하는 광경이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의 갖은 탄압을 받으며 도성 출입금지, 수모까지 겪었던 스님들이 거룩한 승가의 위의를 회복한 지는 이제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출가와 재가대중이 온갖 굴욕을 이겨내며 지켜낸 불조의 혜명은 이제 스님들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게다가 불교계가 공직자의 종교차별과 편향에 항의해 온 상황에서 일부 스님들의 폭력과 폭언은 고단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에 어느 때 보다 하심·공경하는 수행가풍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법(佛法) 앞에 평등함은 물론, 저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엄한 존재임을 가르치셨다. 인도의 3000여 성(姓)으로 세분화된 계급사회에서 부처님은 만인의 평등을 호소하며 왕족의 기득권을 버린 채 맨 발에 음식을 빌어먹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중생의 복밭(福田)이 되지 않았던가. ‘웃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고 했다. 사부대중은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교단의 전통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한국불교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6 인디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적 여시아문 www.yosiamun.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립공원 면적 2~3% 해제 사찰환경 보존 빨간불

불교계·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적극 대응키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가 공원에서 해제되고 일부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사찰환경 보존에 빨간 등이 켜졌다.

환경부는 1월 15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월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 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해제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해제 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사의를 통해 환경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

설지구 등 현행 5개로 나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 재편키로 했다. 이 가운데 마을지구로 단순화된 지역은 규제가 대폭 완화돼 건축물 신·증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기존에 허가사안인 건축물 10% 이내 증축에 대해서는 신고도 생략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제한도 100㎡에서 200㎡까지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수산물 보관시설 규모 제한도 600㎡에서 1200㎡로 풀린다.

아울러 환경부는 노약자 등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로프웨이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의 설치 거리가 현행 2km에서 5km로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공원별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역조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밟

아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국립공원 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1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립공원은 역사·환경·문화적으로 소중한 지역이며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중단 차원에서 불교계 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월 10일 전후로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와 국립공원내 제1회 사찰주지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조계종은 수행 및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불교계 재산권 회복 등을 포함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등 국립공원 정책전반에 대한 정책수립을 위한 실무 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법일·정우스님

조계종 표준 ‘금강경’ 다른점은?

총회의원보선 당선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중앙총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청송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이, 16교구본사 고운사 중앙총회의원에 안동 용담사 주지 정우 스님이 각각 무투표 당선됐다.

1월 20일 당선 확정된 법일 스님은 기림사 주지와 중앙회의 의원, 은혜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사 주지,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 맡고 있다.

23일 당선 확정된 정우 스님은 대원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3년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현재 고운사 호법국장과 용담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금강경>은 402년 구마라집에 의해 처음 한역된 후 300여 년간 6종의 한역본이 나왔다.

한글로는 1924년 용성 스님의 <상역과해금강경> 이후 현재 100여 종이 넘는 한글 <금강경>들이 유통중이다.

그동안 중단 표준본이 없어 하나의 경전을 두고 중단 대중들이 서로 다른 경전을 독송하던 가운데, 1월 20일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이 2년 여의 불사를 마치고 편찬·회향했다.

조계종이 편찬한 <금강경>은 중단 표준본이라는 상징성 외에 △범어·한문·교화 등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실무위원회를 통한 중단차원의 편찬 △판본 대교작업을 통한 한글 교감본 편찬 △공공작업으로

한글 번역 △범본 및 이역본을 참조한 한글 번역 △여러 차례에 걸친 윤문 △수차례에 걸친 학술적 검증 △독송본과 주석본 동시 출판 등이 특징이다.

모든 종도들이 <금강경>을 쉽게 독송하고 경전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간행취지에 따라 대중적인 해설을 했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은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로, 사상(四相)은 각각 ‘자아가 있다는 관념(我相)’, ‘개아가 있다는 관념(人相)’, ‘중생이 있다는 관념(衆生相)’, ‘영혼이 있다는 관념(壽者相)’으로 번역했다.

조동성 기자



군불총 임원들, 총무원 예방 신년하례 김태영(군불총 회장) 합참의장, 임총민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군불교총신도회 임원들이 1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신년 인사를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법사로 첫 부임하는 권기원 법사가 총무원장 스님에게 출국 신고를 함께 했다. 박재원 기자

전통사찰 주변 보호 법적근거 마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지자체 전통사찰유 구성 시급

앞으로 각종 토지 이용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와 문화재 훼손 등을 방지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구역’만 존재했던 기존 법령에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사찰보존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외곽의 경계 500m 이내(전사법 시행령 제10조)인 전통사찰 역사

문화보존구역까지 고려해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확대됐다. 전통사찰 주변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모든 전통사찰에 지정돼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보존구역을 지정할 전통사찰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야 하는데, 서울·경기·부산·제주 제외의 나머지 지자체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중단 차원에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 전통사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승랍기산대책위, 법령개정 논의 본격화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승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지관 스님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가자 고령화 시대에 젊은 스님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승랍을 사미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는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부와 위원회 ‘승랍기산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보인)도 제3차 회의를 열어 정원인 등 관계자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현 승랍기산 방식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사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해령감독, 강연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가칭) 발기인대회”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 인사위원회에서는 불교학술원설립추진을 위한 명목으로 동국역경원장인 월운(月雲)스님을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사부대중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월운스님은 동국역경원의 설립자인 故 운허(耘虛)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965년 역경위원으로 선임되어 1993년부터 동국역경원장직을 맡아 ‘역경보살’로 칭송되며 50여년이란 긴 세월 평생의 원력으로 인재양성과 역경사업에 온 몸을 바친 신 교학의 상징적 존재이시다.

그동안 스님께서는 조계종단과 동국대학교의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종법회에서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며 역경사업추진과 후원을 권유하여 역경원후원회를 결성해 모금한 후원금만도 22여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후원과 지원에 힘입어 역경불사시작 37년만인 2001년에는 <한글대장경> 총318권을 완간하였으며, 2008년 12월까지 그간 번역의 오류를 다듬어 고치고 전산화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스님께서는 이러한 공로로 2003년 조계종포교대상, 2005년 대원상과 대한민국은관문화훈장, 2006년에는 지훈상(芝薰賞), 외술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1962년 4월 통합종단의 출범과 함께 ‘역경’, ‘포교’, ‘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채택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64년 동국역경원을 설립 동국대학교에 자리하게 되었다. 역경원장 또한 종단의 어원을 모서 역경사업을 관장하게 한 사실만 보더라도 조계종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동안 학교 측이 역경원장 해임이나 임명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관례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동국대학교 인사위원회에서는 종단과 역경원장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종단과 종단원로스님께 대한 크나큰 결례이며, 종단 역경불사와 교학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교수·강사스님들의 의기를 짓밟는 폭거와 다름없다.

이번 동국대학교 처서는 2010년까지 제2의 역경불사인 전산화 불사의 회향을 남겨둔 시점에서 스님의 평생 숙원사업인 역경사업을 중도에서 하차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번 역경원장 일방 해임이 언론에 비춰진 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기에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전국의 강원 교직자스님들·봉선문도스님·후학제자와 역경후원회원 그리고 평소 역경불사에 관심 있으신 사부대중의 참여와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 일시 : 불기 2553(2009)년 2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극락전) · 주관 :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가칭)발기인대회 준비위